



03

승례문

2008년 2월 소실된 승례문은 서울 중구 남대문로 4가 29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1962년 12월 20일 국보 제1호로 지정되었다. 승례문은 조선시대 서울 도성을 둘러싸고 있던 성곽의 정문으로서 남쪽에 있다고 해서 남대문이라고도 불렸다. 현재 서울에 남아 있는 목조 건물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태조 4년(1395)에 짓기 시작하여 태조 7년(1398)에 완성하였다. 지금 있는 건물은 세종 29년(1447)에 고쳐 지은 것인데, 1961년부터 1963년 사이에 해체·수리하면서 성종 10년(1479)에도 큰 공사가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 문은 돌을 높이 쌓아 만든 석축 가운데에 무지개 모양의 홍예문을 두고, 그 위에 앞면 5칸·옆면 2칸 크기로 지은 누각형 2층 건물이다. 지붕은 앞면에서 볼 때 사다리꼴 형태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붕을 우진각지붕이라 한다. 지붕 처마를 받치기 위해 기둥 위부분에 장식하여 짠 구조가 기둥 위뿐만 아니라 기둥 사이에도 있는 다포 양식으로, 그 형태가 곡이 심하지 않고 짜임도 견실해 조선 전기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었다.

이와 같이 국보는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그 가치가 크고 유례가 드문 것을 국가에서 지정하며, 소유자에게 통지하거나 관보로 고시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데 국보나 보물 등의 국가지정문화재들은 우리 민족의 역사와 문화를 대변해주는 귀중한 사적 자료이며, 영원히 보존되어야 할 민족적·국가적 최고의 재산이어서 다른 자원과는 다른 특수재산으로 취급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대에 길이 남겨야 할 소중한 우리의 문화유산이 2008년 2월 10일 설 연휴 마지막 날 저녁에 **방화로 인하여 하루 밤** 사이에 소실되어 온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다.



사진 1. 복구된 승례문- 복구기념식(2013년 5월 4일) 3개월 후

1. 일반사항

- 소재지 : 서울시 중구
- 사고일시 : 2008년 2월 10일(일) 20:48
- 발화장소 : 건물 2층 누각¹⁾ 3번째 중앙기둥 근처
- 재산피해
 - 목조구조물 : 문루 1층 10% 물리적 파손, 2층 90% 소실
 - 석축 및 여장 : 일부 파손
 - 기타시설물 : 경관조명 시설 등 부대시설 손상
- 인명피해 : 없음
- 발화원인 : 방화



사진 2. 화재 발생 전



사진 3. 화재 발생 후

2. 건물현황

승례문의 지붕 형태는 지붕 네 모서리의 추녀²⁾ 마루가 처마³⁾ 끝에서 경사지게 오르면서 용마루⁴⁾ 또는 지붕의 중앙 정상 점에서 합쳐지는 우진각⁵⁾ 지붕이다. 지붕 내부의 구조는 기와, 보토⁶⁾·강회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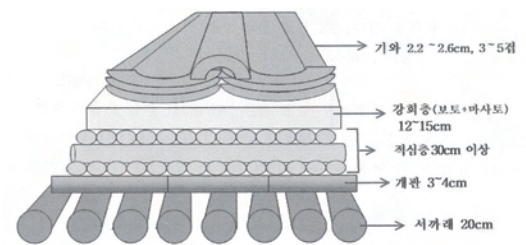


그림 1. 승례문의 지붕 구성도

- 1) 사방을 바라볼 수 있도록 문과 벽이 없이 다락처럼 높이 지은 집
- 2) 네모지고 끝이 번쩍 들린, 처마의 네 귀에 있는 큰 서까래
- 3) 지붕이 밖으로 내민 부분
- 4) 지붕 가운데에 있는 가장 높은 수평 마루
- 5) 네 개의 추녀마루가 등마루에 물려 붙은 지붕으로 지은 집
- 6) 패어서 우묵하게 된 곳에 흙을 채워 메운 것

적심⁷⁾(소나무), 개판⁸⁾, 서까래⁹⁾ 순으로 구성되었다.

그림 1.과 같이 적심층은 지붕 물매를 잡기 위하여나 서까래의 뒷목을 보강하기 위하여 통나무 및 나무판 이외 작업 후 남은 대팻밥 등 폐자재로 두께 30cm 이상 채운다. 강회층은 생석회와 마사토가 혼합 양생된 층으로, 누수 및 기와 침하 방지용으로 12~15cm의 두께를 갖는다. 승례문의 기와는 일반 기와와 다른 대형 기와로 3~5장이 적재되었다.

3. 화재 원인

방화범은 평소 토지보상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었으며, 이^러한 불만을 방화로 표출하고자 하였다. 방화범은 20시 47분경 사다리를 이용하여 서측 담을 넘어 승례문 2층 누각에 침입하였다. 사전에 준비한 시너 1.5리터 3병 중 2병은 세워 놓고, 1^명에 있는 시너를 바닥에 뿌리고 가스라이터로 불을 질렀다.

방화범은 CCTV 등에 포착된 인상착의와 탐문수사 등을 통해 범행 이틀 후 체포되었다. 화재발생 당일 20:47과 20:50에 경비회사에서 설치한 적외선 감지기에서 방화범의 움직임이 감지되었고, 경비회사 CCTV, 교통카메라, 버스카메라에 방화범 모습이 촬영되었다. 누각으로 올라가는 데 사용한 사다리를 넣은 마대자루가 담 남측에서 발견되었고, 마대자루가 놓인 담 너머에 담을 넘기 위해 사용된 사다리도 발견되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발표결과 방화범의 신발에서 승례문의 도료가 발견되었다.

승례문 화재의 방화범은 2006년 4월 26일 창경궁¹⁰⁾ 문정전 내부에 종이와 부탄가스를 이용해 방화를 하여 700만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그 당시 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300만원을 선고받고 출소하였다.

4. 방재시설 및 관리

서울특별시 중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었으며, 주간(10:00~20:00)에는 중구청 직원 3명이 근무하고, 야간(20:00~익일 10:00)에는 경비회사에 위탁관리 되어왔다. 경비회사는 CCTV 4대, 적외선감지기 6조를 설치하고 사무실에서 모니터로 감시하고 있었다.

- 소방시설 : 소화기 8대(1, 2층 각 4대), 주변 상수도 소방용수시설 7개소
- 특별소방감사 : 전통사찰 및 목조 문화재로, 연 1회 검사 대상

7) 마루나 서까래의 뒷목을 보강하기 위하여 큰 원목을 눌러 박은 것

8) 서까래 따위의 위에 까는 널빤지

9) 마룻대에서 도리(서까래를 받치기 위하여 기둥 위에 건너지르는 나무) 또는 보에 걸쳐 지른 나무

10) 서울시 종로구에 있는, 1484년에 지어진 조선시대의 궁궐

- 소방훈련 : 2007년 2회 실시(차량 4대, 인원 26명)

5. 화재상황

5.1 화재 전 상황

화재당일은 휴일로서 1명이 근무하였다. 마지막 근무자가 20시 05분에 경비시스템을 작동하고 퇴근한 후 서쪽 담에 설치된 적외선 감지기 5번 구역에서 20시 47분 09초, 12초, 21초에 3회 감지되었고 20시 50분 01초에 5번 구역이 또 감지되었으며, 20시 50분 16초에 정문에서 좌측 앞에 설치된 3번 구역에서 감지되었다.

승례문에는 4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방화범이 범행 당일 사다리를 담은 마대자루를 오른쪽에 들고 왼쪽에는 시너 등 방화도구가 담긴 가방을 들고 버스에 타고 내린 장면이 CCTV에 촬영되었다. 또한 18시 50분경 방화범이 서측 하단 담으로 내려와 정문 쪽으로 이동되는 모습이 촬영되었다.

5.2 화재 진행상황

119소방대가 20시 53분에 도착하였을 때, 현장은 외관상 연기만 분출되고 있었으며, 2층 내부 진입시 천장에 강한 화염이 보였고, 바닥에는 약간의 잔불이 타고 있는 상태였다. 소방대에 의해 2층 누각 내부의 불길은 진화되었으나, 천장 내부(적심층)에서 계속적으로 혼소상태로 화재가 진행되었다. 지속적인 화재진행으로 지붕 중앙부분 일부가 붕괴되었으며, 산소공급이 원활해지면서 격렬히 연소하기 시작하였고, 소방대는 고가·굴절사다리차 등을 동원하여 대량방수로 화재진압 및 연소방지에 주력했다. 하지만, 지붕의 일부가 붕괴되면서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지붕전체가 붕괴되면서, 건물 전면과 후면으로 잔해물이 흩어져 바닥에서 연소된 후 완전 진화되었다.

화재가 진화되지 못하고 확산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시너에 의한 **고온의 열방출률**로 인해 빠르게 연소 확대
- 천장에 고온의 열기가 지속적으로 체류하여 **대류 및 복사열에 의해 지붕 전체로 연소 확대**
- 기둥과 공포¹¹⁾ 사이, 개판의 작은 틈을 통해서 지붕 적심층으로 인화
- 서까래, 개판과 기와로 인하여 지붕내부 적심층으로 소화수가 침투하지 못하여 화재가 최성기로 성장

방화범은 1.5 L 플라스틱 페트 용기 3개를 갖고 침입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처음 시너 1.5 L를 뿌리고 불을 질렀다. 이후 화재 열기로 인하여 바닥에 세워 놓은 플라스틱 용기 2개가 녹았다. 용기에서 누출된 시너에 불이 붙으면서 단시간에 강열한 화염과 순간적인 열방출로 인하여 뜨거운 열기류(hot plume)가 천장부(서까래)까지 빠르게 확산되었다. 뜨거운 열기가 천장으로 올라갔으며, 열기둥의 대류 및 복사열에

11) 처마 끝의 무게를 받치기 위하여 기둥머리에 짜 맞추어 댄 나무쪽

의해 180℃를 전후해서 목재가 열분해되기 시작하였다. 목재가 분해되면서 CO(33%), CH₄(9%) 등 탄화수소계 가스가 방출되었다. 목재의 인화점(약 240~270℃) 및 발화점(약 400~470℃)에 도달하여 가연성 가스에 착화되면서 지속적인 연소조건이 형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2. 연소진행경로 - 2층 누각 중앙에서 방화

또한 천장이 연소되면서 기둥과 공포 사이, 개관의 작은 틈 등으로 지붕 내부 적심층 잡목(대팻밥, 자꿇밥 등) 및 먼지 등에 인화되어 혼소되다가 천장 내부에 열이 축적되어 불꽃 연소로 진행되면서 천장 내부에 급격히 불길이 확산된 것으로 추정된다.

표 1. 시간대별 화재상황 및 조치사항

시간	화재상황	조치사항
2.10 (일) 20:48	방화자가 사다리를 대고 서쪽의 문루 담장을 넘어가 계단을 통해 2층 누각에 침입하여 준비한 시너로 라이터로 방화. 화재발생	
20:50 20:50	주변도로를 지나던 택시기사가 2층 누각 좌측에서 연기 발생 목격하고 최초 신고 주변도로를 지나던 택시기사가 2층 누각 좌측에서 연기 발생 목격하고 최초 신고	화재발생 신고접수, 출동지령 - 송례문 문화재 화재발생 수보 및 지령 - 차량 16대 출동 유관기관 상황 통보 - 소방방재청, 서울시청상황실, 112상황실 등 통보
20:53	외관상 연기가 많이 보이는 상태	소방대 현장 도착 소방차량 3대추가 출동(총 19대)
20:55		소방 선착대가 1층 누각 자물쇠를 도끼로 파괴하고 빗장을 몸으로 밀쳐 부수고 진입
20:57	2층 내부에 화염 분출 확인	소방대가 2층 누각진입 한 바 내부에선 이미 불길이 다발적으로 번지는 상태(기둥과 천정 절반 정도가 화염에 휩싸임)로 큰 수관으로 첫 방수 개시



사진 4. 21시경 화재상황

시간	화재상황	조치사항
20:58	옥내에서 큰 불꽃은 잡았으나 연기만 계속 발생	후착 소방대 현장 도착하여 내부진입 진화전개 - 옥외화재진압장비인 방수포 사용자제 및 직접 실내에서 적중 분무방수 지시
2.10(일) 21:02	누각 내부와 외부에서 관측한 바, 연기만 나는 상태	누각 내부와 외부(고가차를 이용)에서 관측 - 소방차량 4대 추가출동(총 25대) - 현장수원 확보(소화전 점유) 및 대원 안전 유의
21:08 ~ 21:14		5회에 걸쳐 화재 상황파악 및 소방방재청에 보고
21:13 ~ 21:47	불꽃은 보이지 않으나 연기가 처마에서 계속 나옴	불꽃은 보이지 않으나 연기가 처마에서 계속 나오고 있어 2층 누각 내부 천정파괴 시도
21:33		화재1호 발령
21:55		화재2호 발령
22:30		송례문 관리실에 보관한 실측도면 확보 활용
22:32		화재3호 발령. 3호 비상 발령에 따른 자동 소방차량 추가출동(총50대)
22:50		관계기관 및 전문가로부터의 의견 제시 - 천정내부 적심부위가 연소되고 있어 진화곤란 - 기와를 걷어내려면 지붕 4면을 동시에 걷어 내어 편하중으로 인한 붕괴를 방지해야 함



사진 5., 6. 23시경 화재상황 - 현판 제거

시간	화재 상황	조치 사항
23:00	연기가 계속되고 화염이 나타남.	현판 보호를 위해 소방대원 2명이 철거 후 이동 조치함. 그 후 지붕을 뚫고 방수하기 위해 기와를 걷어 낸 후 바닥을 계속하여 해머로 내리쳤으나 부서지지 아니함
23:10		관계기관 및 전문가로부터 의견 제시 - 2층 누각 무너질 우려 있어 내부 진압대원 위험 제거, 조기대피요청 - 진화가 어려우므로 외부에서는 계속 방수로 냉각효과 유지
23:10		폼액 방수 질식소화 시도
23:15		붕괴에 대비하여 외부에서 폼액 집중방수
23:27		현장 출동한 소방서장에게 방면별 임무분담 및 고가사다리차 6대 이용 2층 지붕 기와를 걷어 내고 상부 파괴한 후 방수 지시
23:38		관계기관 및 전문가로부터 건물부재라도 건져서 복원할 수 있도록 건물을 중장비로 붕괴 또는 도괴하여 진압해 달라는 의견 제시
23:49	불꽃이 2층 누각 전체와 1층 누각 오른쪽 일부를 태우며 검은 연기가 남.	지붕파괴 기와 제거는 4방향에서 균형 있게 걷어내어 편심에 의한 붕괴 방지 및 대원안전 유의지시
24:00		2층 지붕에 사다리차의 사다리 접근이 불가하고 급경사 지붕에 물이 동결되어 매우 위험 하다는 보고를 받음(직원 희생가능성 제시)
2.11(월) 00:06	기와가 튀고 화세가 강해져 붕괴위험이 있는 상황	붕괴에 대비 안전 확보토록 지시

시간	화재 상황	조치 사항
00:25	2층 누각 전체가 화염에 휩싸여 타고 있는 가운데 커다란 불꽃이 지붕위로 솟음	
00:30		현장 언론브리핑 1차(서울재난본부장/문화재청 문화재건축과장 합동)
00:40	2층 누각 오른쪽 지붕부터 붕괴 시작	
01:01 ~01:48		총 8회에 걸쳐 1층 누각 연소방지를 위한 총공세 대량 집중방수토록 지시
01:56	2층 문루 붕괴 되면서 1층 일부 소실	
02:05	화재 완전	화재 완전



(1시경)



(2시경)

사진 7., 8. 다음날(2월 1일) 화재상황

6. 피해상황

승례문의 피해금액은 복구비로 환산할 수 있겠으나 600년이 넘는 서울의 상징적인 건축물이 소실되었다는 점에서 국민의 가슴에 남긴 피해는 측정할 수 없을 것이다. 2층 및 지붕은 대부분 위에서부터 아래로 열을 받아 심하게 탄화되었으며, 기둥은 상부만 소실되었다. 지붕은 대부분 소실되었으나 승례문 외곽으로 무너져 내려 1층의 피해는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었다.

7. 문제점 및 대책

7.1 화재진압 측면

(1) 목조건물의 특성상 시너 등 인화물질에 의한 급격한 발화원에는 진압전술의 변경이 요구된다.

- (2) 일반 주거용 건축물과 차별화된 문화재급 고(古) 건축물의 건축양식이 다양함을 고려해야 한다.
 승례문은 화재에 다음과 같은 취약점이 있었다.
 - 다층구조의 경우 외형과는 달리 내부에는 층간 구획이 없었다.
 - 서까래와 적심 사이 구획 부재의 차이로 인한 연소확대 경로가 일반적인 건물과 다르다.
- (3) 문화재 화재진압능력 숙달에 필요한 경험적 지식습득의 기회가 부족하였다.
- (4) 다양한 유형의 문화재 특성상 표준매뉴얼의 실질적 효용성이 부족하였다.
- (5) 파괴(일부 해체)를 이용하여 목조건축물 화재를 진화하기 위한 소방장비가 개발되지 않았다.
 - 보유 장비들은 현대의 일반 건축물 화재를 대비하여 개발된 것이므로, 목조건축물에서 사용하기는 장애요소가 많았다. 또한 기둥이나 보 등 외부로 노출된 부분의 화재진압은 용이하지만 지붕속의 적심부는 소화수의 침투가 어려워 파괴(일부 해체)가 거의 유일한 소화방법이지만 특수 장비가 없는 상태이다.

7.2 화재예방 측면

- (1) 문화재의 출입제한구역에 대한 보안 경비 활동이 미흡했다.
- (2) 자체경비 인력 부족 및 무인경비 보안시스템의 사각지대가 존재하였다.
- (3) 화재 초기 확산차단 및 감지시스템이 미흡하였다.
- (4) 문화재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 방법이 미 정립되어 있었다.
- (5) 화재 진화를 위해 지붕을 파손하는 것이 필요하였으나 문화재에 대한 보호 때문에 쉽게 결정하지 못하여 진화 시점을 늦췄다.
- (6) 문화재 등 국가중요시설 점검 및 관리를 위한 전문 소방인력이 부족하였다.

8. 참고사항

표 2. 연도별 문화재 화재 건수 및 피해 현황

(단위 : 건, 인, 천원)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화재건수	8	4	7	6	4	1
인명피해 *	0	0	1	0	0	0
재산피해	10,334,547	598,800	71,104	136,888	10,178	299,294

* 인명피해는 사망자는 없으며 모두 부상자임.

표 3. 2009년~2013년 문화재 원인별 화재 발생 현황

(단위: 건)

구분	계	실화			자연적 요인	방화(방화의심)	미상
		전기적	부주의	기타			
계	22	4	8	2	1	3	4
2009년	4	0	2	0	0	0	2
2010년	7	3	1	0	1	2	0
2011년	6	1	3	1	0	0	1
2012년	4	0	2	1	0	1	0
2013년	1	0	0	0	0	0	1

※ 출처: 소방방재청

8.1 문화재 등 목조건축물 화재 특성

- 다수 문화재는 단층 또는 저층의 목조건축물이다.
 - 훈소가 이루어지게 되고, 표면연소에 의한 화재보다 진화, 잔불 정리가 어렵다.
 - 일단 화재가 발생하면 전소, 붕괴 위험이 크다.
- 사찰이나 마을의 경우 인접하여 목조건축물이 군을 이루고 있어 확산 위험성이 크다.
- 인명피해는 비교적 적은 편이다. 거주밀도가 낮고 개별 건물의 규모가 작아 피난이 용이하다.
- 목조건축물은 화재 시 전소되는 경우 원상회복이 어렵고, 역사적인 가치가 떨어지게 된다. 수용하고 있는 문화재가 함께 소실되는 경우 물리적인 피해액 산정은 의미가 없다.
- 위치적으로 소방대 접근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 상징성을 가지는 장소에 대하여 사회적 불만을 표현하기 위한 방화 시도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

8.2 2006년 이후 발생한 문화재 및 사찰 화재 및 훼손 사례

표 4. 2006년~2014년 문화재 및 사찰에 발생한 화재

발생년도	문화재명칭 및 사고내용
20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월 26일 창경궁 ‘문정전’방화: 토지보상에 불만에 대한 계획적 방화 (승례문화재 동일범) ■ 5월 1일 수원 화성 ‘서장대’방화: 자신의 비관에 따른 우발적 방화 ■ 11월 16일 덕수궁 ‘분수대 물개상’ 훼손: 비호감 문화재 역사청산
20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월 16일 조병갑 ‘공덕비’등 다수 비석 훼손: 비호감 문화재 역사청산 ■ 2월 3일 송파구 ‘삼전도비’훼손: 비호감 문화재 역사청산 (공덕비 훼손 동일범) ■ 3월 9일 강북구 ‘도선사’방화: 정신이상에 따른 범행 ■ 4월 27일 운현궁 ‘대문’차량돌진 후 뺑소니
20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월 15일 수원 화성 ‘서북각루’역새발 방화: 중학생들이 분실한 휴대폰을 찾기 위한 목적 ■ 2월 10일 승례문 방화: 사회적 불만에 의한 계획적 방화

화재발생일 (시)	문화재명칭	화재 원인	피해상황
2009.12.20. (00:24)	전남 여수 향일암 (전라남도 문화재 자료 제40호)	미상	목조건물인 향일암 대웅전에서 원인미상의 화재가 발생하여 강한 바람과 복사열로 5~10 m 떨어진 종무소, 종각 등으로 연소확대되어 건축물 3개 동과 불교용품 등 5억 9천여만원의 피해 발생
2010.05.03. (12:58)	경남 진주 성전암	방화	난입한 방화범이 여러 곳에 화재를 발생시킴. 본당인 대웅전과 나한전, 삼성각, 요사채와 종무소 등 건물 9개동, 380여㎡를 태워 4억 5000만 원의 재산피해. 다행히 인조대왕 위패를 모신 인조대왕각은 불길을 피함.
2010.10.25. (03:38)	경남 진주 김해김씨 비각 (경상남도 시도유형문화재 제155호)	방화 의심	경남도 지정문화재인 단층팔각지붕 목조건물로, 비각 뒤쪽에서 최초 발화하여 지붕으로 연소확대되어 비각의 전면 2칸과 측면 1칸을 절반 이상 태우고 1시간 30여분 만에 진화됨. 현장에 종이, 면장갑, 유류용기로 사용된 페트병이 있는 점으로 보아 방화에 의한 화재로 추정.
2010.12.15. (22:20)	부산 범어사	방화	부산 범어사(梵魚寺)에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나 오랜 목조건물인 천왕문(天王門) 소실. 조계문(보물 제1461호)과 불이문 사이에 있고 근처에 스님들의 숙소가 있어 불길이 번질 우려가 제기돼 사찰 측과 협의, 굴착기로 건물을 완전히 부순 뒤 진화 작업을 벌임.

화재발생일 (시)	문화재명칭	화재 원인	피해상황
2011.01.25. (20:03)	경북 성주한개마을 (중요민속문화재 제255호) 한주종택	기타	한주종택(寒洲宗宅 · 경상북도 민속자료 제45호)에서 불이 나 55㎡ 규모의 안채 1동이 전소되고, 아래채 일부가 불에 타 4억여원(피해복구 추정액)의 재산피해를 냄. 평소 사용하지 않던 작은방의 아궁이에 장작불을 지핀 후 구들장 틈새로 불길기 올라와 불이 난 것으로 추정
2011.09.06. (16:30)	춘천 보광사	미상	보광사 대웅전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이며 목재의 탄화흔 및 건물의 붕괴 상태로 보아 건물 우측 후면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발화지점 부위의 목재 기둥의 내부와 외부의 탄화심도가 같고, 대웅전 내부에 쌓아 놓은 책의 탄화패턴이 일정방향으로 내부에서 외부로 나타나고 있으나, 외부 주춧돌의 박리 및 그을림 형태로 보아 외부에서 내부로 탄화된 형상을 띄고 있어 발화지점이 명확치 않은 원인 미상의 화재
2012.10.05. (02:30)	전남 구례 화엄사 각황전 (국보 제67호)	방화 의심	각황전(국보 제67호)에서 예불 중이던 스님이 시너 냄새를 맡고 뒤편 문짝에 남아있던 불씨를 청수로 진화하였으며, 02:30 경 한 남성이 신문지에 불을 붙여 방화를 시도하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찍힌 것으로 보아 방화로 추정. 2008년에 착화를 지연시키는 방염제를 도포하여 문짝 일부만 그을리고 꺼짐.
2012.10.31. (02:00)	전북 정읍 내장사지 (전라북도 시도 기념물 제73호)	전기적 요인	대웅전 89㎡가 모두 불에 탔고 대웅전 안에 있던 불화(佛畵) 3점과 불상 1점이 소실. CCTV 확인한바 건물 내부 전기난로 부근에서 발화되어 건물 전체 연소 확대됨, 전기난로 장시간 사용에 의한 끌어들임선 단락에 의해 발생한 화재로 추정
2013.08.13. (15:10)	전북 군산 보성사	미상	사찰내 대법당 1동이 전소되고, 인접한 산신각 1동이 반소되는 피해 발생
2014.01.13. (16:52)	경북 안동 하회마을 (중요민속문화재 제122호) 북촌택	-	디딜방아를 전시한 아랫채 건물의 초가지붕(30여㎡)을 태운 뒤 5분여 만에 꺼짐.

출처 : 소방방재청 및 언론기사